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용담동 성당 정연호 빈첸시오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세계는 하늘길을 폐쇄하고 새로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여행업을 하는 나는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 듯 할 일을 빼앗기고 말았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고 웃음기 없는 하루 하루를 힘겹게 보내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유례없는 미사중단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신앙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길을 따라 걷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이 책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고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염원하기 위한 교구의 순례 안내서이다.

8년전 쯤으로 기억된다. 바오로서원을 들렀다가 “차쿠의 아침”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차쿠? 뭐지 하며 책장을 넘기다 보니 저자가 교구 신부님이셨다. 내용이 더 궁금하여 책을 총동구매하여 읽어보니 최양업 신부님의 일대기를 주제로 한 소설이었다.

다 읽은 후 가슴 뭉클한 감동의 여운은 꽤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 지금도 최 신부님을 생각할 때면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곤 한다.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국경을 넘어 마카오까지 걷고 또 걸어야 했던 소년 최양업.

낯선 이국땅에서 조국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긴 시간을 공부에 전념했던 신학생 최양업.

조선 입국을 시도하다 좌절하며 조선 천주교의 실상을 정리하여 파리외방전교회 본원에 남기시어 오늘날 이 땅에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탄생시킨 토대를 마련하신 부제 최양업

압록강이 얼기를 기다리며 조선 입국 거점 성당에서 사목을 하신 사제 최양업.

최 신부님께서 사목을 하신 곳이 바로 “차쿠”성당이다.

우연찮게 “차쿠의 아침” 저자 신부님을 만나고 신부님 덕분에 차쿠도 방문하며 최양업 신부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차쿠의 아침”은 신부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알게 된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 기념하는 순례서 “그 길을 따라 걷다”를 들고 21년 새해 첫날 신부님께서 태어나신 탄생지 새터성지를 향해 출발. 아침부터 눈이 내렸는데 성지에 도착했을 때는 눈발은 더 강해졌다. 신부님께서서는 한국인 사제로는 처음으로 방방곡곡 숨겨져 있는 교우촌을 다니셨겠지 마치 아무도 걷지 않은 눈덮힌 새하얀 성지를 순례하는 우리 부부처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서 말이다.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런 신부님의 사목길에 동행하겠다고 다짐해 보았다.

다음으로 신부님의 사목여정에 동행한 곳은 경북 경주의 진목정 성지와 진목공소이

다. 이곳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고불고불 시골길과 가파른 오르막 산길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었다.

차량으로도 쉽지 않은 이곳을 신부님께서 신양공동체가 있다는 말씀 하나만 듣고 걸어서 순방하셨겠지요? 나는 이곳을 순례하면서 신부님을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며 다음 순례할 곳이 기다려졌다.

이어 순례한 곳은 청주에서 멀지 않은 “봉암성지”와 “명에목성지”이다. 봉암성지는 신부님께서 김 사도요한을 신학생으로 직접 선발하신 곳이며 여러명의 순교자가 나온 곳이다. 명에목성지는 복자와 순교자는 물론이고 최신부님께 세례를 받으신 최용운 암브로시오 회장과 전 야고보가 신양공동체를 만드셨던 곳이다. 아직 이 두 곳은 성지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신자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최 신부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곳이지만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 복녀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종로성당 좌포도청 순례지와 당고개 순교성지, 그리고 서울 인근의 수리산 성지를 순례하였다. 이중 먼저 방문한 곳은 조선 천주교회 신앙지킴터 종로성당 좌포도청 순례지이다. 부친이신 최경환 성인은 기해박해 때 갖은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가신 곳이며 한국 천주교회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난 곳이다.

이어 방문한 곳은 당고개 순교성지로 최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께서 젓먹이 막내의 죽음 앞에 잠시 거짓 배교를 하였지만 곧이어 배교를 취소하고 굳건한 믿음을 앞세워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택하신 성지이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출입 인원과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수리산 성지는 최 신부님의 부모님께서 이주하여 신양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셨던 교우촌이 있던 자리이다. 수리산 성지 기념성당 앞에는 부모님의 흉상이 성당 내부에는 최신부님과 부모님을 유리화로 만나볼 수 있다.

성인께서는 기해박해 때 이곳에서 체포되어 끌려가시면서도 “형제들이 용기를 냅시다. ...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재고 계십니다”라고 격려하며 앞장서 가셨다고 합니다. 순례를 위해 방문했을 때 성인의 묘로 향하는 진입로 공사가 한창이어서 후일을 기약하며 고택성당과 바뇌성모님까지만 순례를 하였다.

여름의 가운데를 지나며 신시도로 향했다. 지금은 방조제 공사로 차량으로 접근이 수월하지만 최 신부님께서 체류하실 때에는 자그마한 섬이었을 것이다. 신부님께서 부제이실 때 조선 입국을 위한 귀국길을 탐색하려고 프랑스 군함에 올랐지만 군함이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섬에 좌초되어 32일간 체류하였던 곳이다. 고향을 떠나 꿈에서나 그렸던 조선의 산하, 조선의 신자들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신부님의 마음에 공감해봅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 일행 난파 체류지” 팻말 하나만이 그 때를 기억하게 해주고 있었다.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주말 남방제 성지에는 관리를 맡은 인근 성당의 신자들이 성지 잔디깎이와 정화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은 삽교천과 가까워

박해시기에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피신하는 중요한 길목이었고 한국천주교의 네 번째 사제가 되신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과 그의 가족이 살던 지역으로 최 신부님의 순방지였으며 신부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마부 겸 복사로 봉사했던 조화서 베드로 성인이 살던 곳이다.

최 신부님께서 사목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충북 진천의 배티성지는 프랑스 선교사들도 본당 중심으로 삼고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와 경기도지역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접근성으로 지닌 곳이다. 은골, 정삼이골, 용진골, 절골, 지구머리....등 열다섯 곳의 비밀 신앙공동체가 성지 주위에 위치한다고 한다. 이곳 순례를 위해서는 다른 성지를 방문할 때보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좋다. 최 신부님 선종 150주년 기념성당, 순교자 현양비, 최양업 신부 박물관, 한국최초의 신학교, 무명순교자 묘등 순례할 곳이 정말 많은 곳이다.

이어 방문한 곳은 배티성지를 거점으로 씬 없이 사목으로 하셨던 최 신부님께서 과로와 장티푸스로 돌아가신 후 가매장 되었던 시신을 옮겨 모신 신부님의 무덤이 있고, 조선 천주교의 상황을 서방에 알리기 위한 황사영의 백서가 쓰여졌고 한국 최초의 서양식 학교가 있던 배론성지이다. 성지 안쪽으로 최양업 신부 조각공원에는 씬 없이 달리셨던 신부님이 아니라 앉아서 순례객들을 기다리고 계신 신부님이 계신다.

신부님 기념성당 앞에는 왼손에는 지팡이를 오른손에는 묵주를 들고 계신 최 신부님 동상이 이 있는데 청주교구의 신부님 동상과 달라 일치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았다.

마을 계곡 주변에 개복숭아 나무가 많다하여 생긴 도원곡에서 유래된 도양골은 공주, 서천 등지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이주하여 살던 교우촌이 있던 곳이다. 최 신부님께서 국내 입국하여 쓰신 첫 번째 편지의 발신지에 “도양골에서”라고 나오는 곳이다. 커다란 순교현양비와 돌제대와 돌 십자가 인상적이었다. 다른 방문지처럼 이곳 또한 국도에서 한참을 올라와야 도착할 수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건다”의 마지막 순례 여정으로 부산 울산지역의 성지를 다녀왔다. 청주에서 가장 먼 곳이라 새벽같이 길을 나섰다. 신부님께서도 먼 곳을 순방하실 때에는 동이 트기 전 캄캄한 시간에 출발하셨겠지요?

수영 장대 순교성지를 먼저 찾았다. 경상도 좌수영이 있었던 곳으로 높은 대에 올라 명령하고 지휘하던 장대가 있던 곳이었으나 병인박해 때 여덟분의 순교자가 나선 순교터이기도 하다. 이 곳으로 체포되어온 교우들에 모진 고문과 형벌이 가해졌지만 교우들은 “가세, 가세 천당으로 가세”라고 노래를 부르며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였다고 한다. 작은 성지에는 아침 일찍이었는데도 2~4명 정도의 소그룹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성지를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어 방문한 곳은 오륜대 순교자 성지이다. 이곳은 부산에서 순교하신 8분의 ‘부산

순교자 묘소'와 한국 순교성인 103위 중 26위의 유해를 안치한 '순교자 성당'이 있는 곳이다. 성지 입구에는 순교복자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의 흉상이 모셔져 있고 맞은편에는 한복을 입으신 성모자상이 있다. 특히 한복을 입은 성모님의 편안함은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한 순례자를 위로해주는 듯하였다. 성지에는 한국 순교자 박물관, 부산 순교자 묘소, 숲길을 따라 조성된 십자가의 길, 성모 동굴, 목주기도의 길, 김대건 신부님 상, 라파엘호, 최양업 신부님 동상 등이 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성지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점심을 먹고 울산으로 발길을 돌려 울산병영 순교성지로 향하였다. 경신박해와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순교하였고 백지사형으로 순교한 오치문, 경주 감옥에 갇혔던 허인백 야고보, 김종륜 루카, 이양등 베드로 회장 등은 이곳에서 군문효수를 당했다. 순교복자 허인백 야고보는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리 세명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하셨다고 한다. 이곳의 성당 내부는 독특하였다. 제대가 신자석으로 둘러싸여 성당 중앙에 있으며 제대에는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박혔던 커다란 못 3개가 중앙 벽면에는 불허 모양의 성령칠은이 천정의 십자가 창을 통하여 하늘과 연결되고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마지막 순례지인 살티공소와 살티 순교성지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태백산맥 끝자락에는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1,241m 가지산이 있다. 가지산은 산세가 험하고 맹수들이 많아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 몸을 숨기는 교우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신앙공동체를 형성 하였다고 한다. 마을 돌담길 사이로 승용차 한 대 지나기도 버거운 곳 살티공소. 간월골에 살던 동정녀 김 아가타는 혹독했던 박해를 피해 죽림굴에 피신하신 최양업 신부님을 정성껏 공경하다 잡혀갔던 후유증으로 선종하였다. 오빠 김영제 베드로도 혹독한 박해의 고문 후유증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으며 두 남매의 묘소는 살티공소 인근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새해 첫날 시작한 순례의 길을 11개월만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신부님의 순방길에 발목을 잡았겠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당신께 주어진 그 길을 신부님께서 걷고 또 걸으셨겠지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한 “그 길을 따라 걷다”의 여정에서 신부님의 모범적 삶을 배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신부님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